

아날로그·시·문화 융합...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주제 개막식 ‘K-디즈니 순천’ 담아 총 8개소 리뉴얼

순천만국가정원이 새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전남도는 1일 “순천만국가정원 스페이스 허브(기존 남문광장)에서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이란 주제로 2024년 순천만국가정원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노관규 순천시장,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도민 3천여명이 참석했다.

공식 행사는 어린이와 함께 입장 퍼레이드,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공연, 정원문화도시 선포식, 24개 읍·면·동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퍼레이드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했다.

김영록 지사는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새단장한 국가정원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미 대한민국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고 대표 정원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제1호 국가정원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미래 도시, 순천의 탄생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국가정원의 아날로그 요소를 강화하면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애니메이션 요소를 결합해 새롭게 단장했다.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 즐길 거리로 3대가 함께 즐기는 ‘케이(K)-디즈니 순천’을 엮는 최적의 장소로서 서원 3개소, 동원 5개소를 리뉴얼했다.

기존 남문광장 일원은 예코지오 온실과 배수로를 정비해 350m, 1만5천510㎡(4천700평)에 달하는 ‘스페이스 허브’를 조성해 신규 랜드마크로 탈바꿈했다.

동문과 서문을 잇는 ‘꿈의 다리’ 외부는 우주선이 내려앉은 형태로 꾸며 ‘우



1일 오전 순천만국가정원 스페이스허브(남문광장)에서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등 내빈들이 입장하고 있다.

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핵심 주제를 표현했다. 내부는 물, 순천만, 우주 가 어우러진 미디어 연출을 통해 우주와 정원을 잇는 관문인 ‘스페이스 브릿

지’로 재탄생했다. 동문권역의 ‘노을정원’과 ‘키즈가든’ 인근에는 자연주의 환경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인기 애니메이션 ‘두다다’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미로정원은 누적 조회 수 50억 뷰에 달하는 ‘유미의 세포들’ 캐릭터를 입혀 MZ세대를 겨냥한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로 새단장했다.

국가정원 핵심 콘텐츠 중 하나였던 ‘시크릿가든’은 4D 영상 시스템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단순히 보기만 했던 기존 정원을 체험형 실감 콘텐츠 도입을 통해 ‘시크릿 어드벤처’로 재구성했다.

‘가든스테이 설랑개’는 ‘정원 위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최고 정원이라는 차별화된 요소를 바탕으로 일과 휴식 모두를 만족시킬 위케이션 성지로 키울 계획이다.

입장료는 일반 성인 1만원, 청소년·군인 7천원, 어린이 5천원이다. 순천시민은 성인 2천원, 청소년·군인 1천500원, 어린이 무료이며 1년권은 1만원에 발급한다.

정원 이용과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은 성인 기준 관람차 3천원, 정원드림호 1만2천원, 캐빈하우스 1박 15만원, 스카이루트 왕복 8천원 등이다. 정원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다.

첨단산단 근로자도 ‘반값아침’ 먹는다

광주시, 테크노파크에 ‘간편한 아침 한끼’ 2호점 개소

첨단산단 근로자들도 ‘반값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1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하남산단에 근로자 조식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날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 별관에 ‘간편한 아침 한끼’ 2호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간편한 아침 한끼’ 첨단산단점은 광산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아 월-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김밥, 컵밥, 샐러드 등으로 메뉴를 다양화해 하루 100명분의 아침 식사를 판매한다.

특히 구매한 음식을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면 당일 영업은 조기 종료된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산단근로자 조식지원 사업’(간편한 아침 한끼)은 시중 가격 대비 50% 정도의 저렴한 가격(2천~3천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해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과 근로 여건 개선은 물론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첨단산단점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챙겨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지난해 3월27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문을 연 하남산단점은 12월 말까지 1만9천184개의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102명의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근로자 조식 지원 사업이 매일 준비한 물량이 완판될 정도로 호응이 커 올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 첨단산단점 개소를 추진했다”며 “지역 모든 산업단지에 조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산하기관 예산안 오류 ‘심각’

시의회 예결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행 광주연구정 위반...3곳은 서면 심의 의결도

광주시 산하기관 19곳 중 일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의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1일 발행한 ‘2024년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광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15일 재적이사 12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4년 수입·지출예산안을 전원 동의 의결했다.

하지만 광주연구원 정관 제24조(의결 정족수)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은 7명이기 때문에 6명이 참석·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재)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은 서면 심의로 예산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광주문화재단은 단순 덧셈도 맞지 않은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가 하면, 오류를 알고서도 바로잡지 않고 회 추경 예산안까지 심의·의결했다.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 단가가 무려 1천90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였고, ICT·SW 지원 분야의 ‘상시전문가 멘토링 수당’은 1명이 1회당 30만원씩 총 540회에 걸쳐 1억6천2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또 광주관광공사, 광주연구원, (재)남도장학회 등 6개 기관은 조례에 따라 올해 예산부터 출연금을 정산한 후 광주시로 반납해야 하지만 자체 세입으로 편성했다.

저소득·장애인 여행 활동 지원 확대

전남도, ‘행복여행 지원사업’ 모집...6천여명 혜택

전남도는 1일 “지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복여행 지원사업’을 확대, 시·군과 협력해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로 약 6천여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복여행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여행이 어려웠던 도민을 대상으로 여행 활동을 지원한다. 선정된 인원은 여행을 통해 당일 또는 1박2일로 전남지역 여행

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1인당 지원액을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했다.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동행 1인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참여 인원도 지난해 1천여명에서 올해 2천여명으로 확대했다.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하거나 무장애 관광상품을 실제 운영하는 여행사를 우대 선정하도록 제

도도 개선했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시각·발달·청각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이다.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참여 여행사 모집을 거쳐 이달부터 각 시·군 누리집에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지역 분양 소식

비싸고 불안하기만 한 아파트 가격! 임대료가 답이다

영무예다음 (시공예행사) 현재 사전 청약 접수중 (특별혜택)

최고의 가치

10년 전세 아파트

1억7천대~ 영무예다음 더 퍼스트

페이스톤국제학교 2026년초 개교

달빛내륙철도 호재

문의 전화 1533-8321

HILLSTATE

삶이 예술이 되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 실시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 1,466세대 분양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중!!
1,466세대 대단지
(구)33평형, 43평형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선착순 동·호지정

총 1,466세대 84㎡, 102㎡, 112㎡, 157㎡ (2블록 785세대 / 3블록 681세대)

대표 전화 1533-8316